“어린시절 한강은 ‘동화적 몽상가’…혼자만의 생각 즐겨”

부친 한승원 작가가 들려주는 한강
한강 작가를 만든건 ‘8할이 몽상’
섬세한 문체로 시적·서정적 울림

14일 광주 북구 중흥도서관 로비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축하하는 코너가 마련됐다. 도서관을 방문한 중흥하나어린이집 아이들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 대표도서를 둘러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소질과 상상력이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을 방증하는 것으로 장차 문학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성향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12일 부친인 한승원 소설가와의 통화에서 유년의 한강 작가의 모습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한승원 소설가에 따르면 한강 작가는 한마디로 ‘동화적 몽상가’ 였다.

한승원 소설가는 “그 아이는 늘 혼자 생각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어릴 적 안 보여서 찾으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강이는 자기 방에 누워 있곤 했다”며 “내가 ‘거기서 뭐하니?’라고 물어보면 ‘공상을 해요’라는 답이 돌아오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승원 소설가는 “돌이켜보니 강이의 눈빛은 뭔가를 꿈꾸는 모습이었다”며 “혼자만의 동화적인 몽상을 즐기던 시간이 결국 오늘의 작가로 키운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승원 작가의 말을 짐작해보면 어쩌면 한강 작가를 만든 것은 ‘8할이 공상’이었을 듯하다. 모든 예술가에게 어린 시절, 즉 유년의 상상과 공상은 중요한 원초적인 자산이다. 무궁무진한 상상의 발원지이자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이기 때문이다.

한 작가는 딸의 작품은 제3세대인 자신들의 소설과는 전혀 다른 빛깔과 아우라를 발한다고 했다. “시적이고 서정적이며 신화적인 특질이 있는데” 섬세한 문체와 결합돼 울림을 주는 것 같다는 얘기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은 효동초등학교를 다니다 1980년 1월 서울로 전학을 간다. 그 즈음 한승원 소설가는 동신중학교 국어교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서울로 올라가 문학의 꿈을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다. 식솔들을 데리고 상경한 작가가 가장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된다.

오늘날 한강의 작가로서의 대성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예나 지금이나 작가들의 방은 다양한 책들로 들어차 있기 일쑤다. 어떤 작가의 방은 층층이 쌓인 책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다. 한강은 소설, 시 등 다양한 책들로 채워진 아버지의 집필실을 보며 작가로서 꿈을 키웠을 것이다.

한승원 소설가는 “본질적으로 모든 예술가, 특히 작가는 혼자만의 세계를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직업이다”며 “강이는 밤이면 새벽까지 타자기 앞에 앉아 밤새 소설을 쓰는 나를 보면서 자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 작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체득한 것 같다”며 “혹여 아버지가 작가로서 존경받지 못한 존재였다면 딸이 문학의 길로 들어섰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맞물려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의 작품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승원 작가는 그동안 ‘아제아제 바라아제’, ‘추사’, ‘물에 잠긴 아버지’, ‘동학제’, ‘초의’, ‘원효’, ‘다산’ 등 다수의 작품을 썼다. 한국소설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대한민국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점도 도서관도 온라인도 ‘한강 열풍’

노벨상 이후 책 판매 2240배 ↑
전국 도서관 대출도 폭발적 증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서점의 작품 판매가 문학상 수상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도서관 대출 급상승 도서’ 부문에서도 1위에 오르며 한국 작가로 첫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14일 예스 24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수상 후 이날 오전 8시까지 한강의 책은 31만부(전자책 제외)가 팔렸다. 수상 직전 4일 전과 비하면 2240배 증가한 수치며 외국도서는 1600배 증가했다. 종이책은 ‘소년이 온다’, eBook과 외서는 ‘채식주의자’가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종이책은 40대, eBook은 30대, 외서는 5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스24 관계자는 “국내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관심이 뜨거운 데다 한강 작가가 많이 알려진 것이 원인이다”며 “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외의 다른 작품도 전체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문고도 한강의 주요 작품이 노벨문학상 이후부터 꾸준히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상 발표 시간인 10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31만 3000부가 판매됐다. 교보문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도 증쇄본이 입고 돼 순차적으로 영업점 진열 판매 진행 중에 있다.

누적판매 순위는 어제와 동일하게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순으로 판매량이 높았으며 eBook 순위는 ‘채식주의자’가 상위를 기록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도서 품귀 현상으로 전자책으로 독서하려는 독자들도 늘어나 4일간(10일~13일 누적) 판매가 950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도 한강의 열풍은 확인되고 있다.

이날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서관 정보나루’ 통계에 따르면 한강이 2021년 발표한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출 급상승 도서 1위에 올랐다.

이는 전국 공공 도서관 1490여 곳 대출 현황 등을 집계한 수치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6일까지(7일간) 대출 현황 분석한 순위가 547위였다. 10월 7~13일에는 544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수상자 발표가 있던 10일 이후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향후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벨 경제학상에 아제모을루·존슨·로빈슨

아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3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아제모을루, 존슨은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000만원)가 주어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 이름 기념관 등 안된다

▶1면에서 계속

한승원 작가는 “대신 딸이 광주라는 도시가 시민이 책을 많이 읽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딸이 태어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소년이 온다’ 북카페 등을 조성해 시낭송, 독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전쟁에 주검들이 실려 나가는 데 무슨 잔치를 여냐’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큰 기념관, 화려한 축하 잔치를 원치 않는다는 한강 작가의 말을 가슴에 담아 그 성취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작가 본인의 뜻을 반영한 아버지의 의견을 받들어 인문학 지평을 넓히는 쪽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일단 매년 시민 1명이 1권의 책을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정책을 선거법 안에서 찾기로 했으며, 건축 중인 광주대표도서관·하남도서관, 유치 추진 중인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등 공공 도서관을 확대하고 ‘광주 인문학 산책길’을 조성해 ‘소년이 온다’ 북카페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가칭 ‘광주 인문 르네상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콤플렉스 조성, 독립서점 활성화, 2026년 전국도서관 대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강 시장은 “한강 작가는 가장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사안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길어 올렸고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광주시는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개헌도 추진해 오월 정신이 세계로 확산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길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뚜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 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 설 팅(전문상담) 분 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259-5, 산291, 산292, 산293-1, 산297, 산298, 산299, 산300, 산301, 산302, 산303, 산304.
2. 분묘기수 : 32기 (봉두리 산299번지 8기 추가확인 포함)
3. 분묘유형 : 유, 무연분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인근봉안당 안치10년)
6. 안치장소 : 영락공원내 추모의집(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번지)
7. 개장사유 : 토지사용권 행사 및 개발행위
8. 신고처 : 김용주(010-2266-8209)
9. 신고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
10. 기타사항 : 위 지번내에 봉분 망실등과 잡풀이 우거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본 개발행위 시행 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등)에 대하여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위 공고인 주식회사 동신에스유

합 병 공 고
2024년 10월 14일 개최한 다음 양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한국경영원(“갑”)은 주식회사 한경아이티에스(“을”)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갑” 주식회사 한국경영원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0(중흥동)
대표이사 김 보 현
“을” 주식회사 한경아이티에스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0(중흥동)
대표이사 김 보 현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4 조대부고인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2024. 10. 20(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봉 규

분 할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진흥전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에이씨디씨(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4년 10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그 재산의(영업)일부(전기공사업(면허번호:경기-01540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에 의거 “갑”의 분할되는 재산, 부채 등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 다 음 -
1. 양도(분할, 합병)대상 전기공사업의 종류 : 경기-01540호
2. 양도(분할, 합병)예정일 : 2024년 11월 14일
3.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1)기간 :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1월 14일
(2)제출처 : (갑)상도자 또는 (을)상수자
“갑” 주식회사 진흥전력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29동 203호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사내이사 최 석 인
“을” 주식회사 에이씨디씨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3길 11
대표이사 김 효 선
202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진흥전력공사
사내이사 최 석 인

분 할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진흥전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에이씨디씨(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4년 10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그 재산의(영업)일부(전기공사업(면허번호:경기-01540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에 의거 “갑”의 분할되는 재산, 부채 등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 다 음 -
1. 양도(분할, 합병)대상 전기공사업의 종류 : 경기-01540호
2. 양도(분할, 합병)예정일 : 2024년 11월 14일
3.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1)기간 :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1월 14일
(2)제출처 : (갑)상도자 또는 (을)상수자
“갑” 주식회사 진흥전력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29동 203호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사내이사 최 석 인
“을” 주식회사 에이씨디씨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3길 11
대표이사 김 효 선
202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에이씨디씨
대표이사 김 효 선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처방건 400건, 6개월 후 10년 임대 끝.
유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약국. 내과(의사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6.13%)
매매가 78억 은행
42억5천 / 보9억 4천 포함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